

# 학습자를 배움의 길로 인도하는 또 한 명의 선생님 '교재개발자'

미래엔 교재개발자 이미지

“교재 12페이지를 살펴볼까요?” 수업시간이 시작되고, 교과서를 펼쳐 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학생들은 모두 교과서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교과서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수업도구지요. 따라서 학생을 잘 가르치려는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만큼 잘 만들어진 교과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과서는 지식을 쉽고 명쾌하고, 재미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교과서의 내용이 어렵고 지루하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흥미를 잃기 쉽지요. 선생님과 학생의 일상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서, 과연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학생들과 선생님을 위한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 바로 교재개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구매할 때는 책의 제목뿐만 아니라 작가도 유심히 살펴봅니다. 하지만 교과서는 학교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작가를 눈여겨 살펴본 친구들이 적을 것입니다. 생소한 직업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과서를 만들어주는 교재개발자, 과연 교재개발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 교과서를 만들까요? 교재개발자가 되기 위해선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살펴봅시다.

## ▼ 교재개발자가 하는 일은?

교육 트렌드 분석부터 교정·교열 작업까지

교재개발자란?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정확하고, 효율적인 학습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

교재개발자는 교사와 학생이 효율적으로 교육·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반영해 △교과서 △학습지 △문제집 등의 교육교재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교과서를 만들 때는 교재개발자의 마음대로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연령에 적합한 교육수준과 반드시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고려해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과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제작되는지 아래 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교육 트렌드 분석 → 교재의 개념과 세부항목 결정 → 원고작성  
→ 원고검토 & 교재 디자인 작업 → 교정 및 교열

첫 번째, 교육의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함께 변합니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자는 교육과정·교과서 개편과 같은 교육과 관련된 변화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지요.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어떤 교재를 원하는지 의견을 조사합니다. 설문지 조사, 인터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요. 효과적인 학습 방법과 교수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도 빼놓아선 안 될 중요한 업무입니다.

두 번째, 교재의 콘셉트와 세부항목을 결정합니다. 1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해 팀원과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교재의 전체적인 성격과 특색을 결정하지요.

세 번째, 원고를 작성합니다. 정해진 교재의 성격과 목적에 맞춰 교재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교재개발자는 직접 교재를 집필하기도 하지만, 전문성을 가진 필자를 섭외해 원고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원고를 검토하고 교재디자인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성된 원고를 읽고 회의를 통해 교재가 기획의도에 맞는지 검토하고 수정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교과서의 디자인적인 구성과 교과서에 실릴 사진, 삽화에 대해 디자인 부서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다섯 번째, 교정 및 교열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맞춤법에 따라 교재가 만들어져야겠지요?

▼ **교재개발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글 쓰는 능력과 논리적 분석력을 갖춰야!**

교육과정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육목표에 맞춰 교과서를 만드는 일

▶교육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교육 내용을 글로써 구현해내는 직업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글쓰기 능력은 필수!

선생님과 학생이 교재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일

▶논리적 분석력 갖춰야!

교재개발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먼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력을 심도 있게 길러야 합니다. 변화하는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학생과 교사에게 적합한 교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변화를 분석한 뒤 어떤 교육목표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선 교육과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글쓰기 능력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교과서는 교육내용을 글로써 구현한 것입니다. 교과서 개발자는 교과서를 통해 학생·선생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글을 잘 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교재를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선 교재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학 교과서의 내용을 떠올려볼까요? 수학에서 가장 먼저 덧셈과 뺄셈을 배웁니다. 그리고 곱셈을 배우지요. 더하기를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곱셈을 먼저 배우면 곱셈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겠지요? 따라서 교과서 개발자는 교재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교재개발자로서 어려운 부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 교과서와는 다른 차별화된 구성, 학습법을 기획하기 위해 전공뿐만 아니라 타 과목 및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이미래 교재개발자)

이미래 교재개발자는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도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언

급합니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차별화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선 만들고자 하는 교과서의 과목뿐만 아니라 타 과목 및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경험을 쌓는 과정이 필수겠지요?

▼ **교재개발자가 되려면? 교육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자책과 기반기술에 대한 관심이 필수!**

대학에서 교육 관련 학과 전공 → 교재전문 출판사 등 교육관련 단체 등에 취업

교재개발자로 활동하기 위해선 △교재전문 출판사 △학습지 전문 업체 △교육관련 단체 등에 취업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교재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꼼꼼함은 실수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교재는 한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모든 학생, 모든 선생님을 위한 책입니다. 따라서 오류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대학에서 △수학교육 △사회교육 △국어교육 등 교육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교재개발자로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재를 개발할 때 필요한 다양한 교수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종이책 대신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전자책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재개발자의 업무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전자책을 활용해 더욱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지요. 교재개발자로서 전자책과 전자책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평소 전자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전자책을 접하며, 기술적인 측면을 공부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교재개발자로 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평균수명이 올라감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평생교육을 위한 교재시장이 확대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교재를 개발하는 인력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교재개발자,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학생과 선생님을 고려한 교과서를 만들어라!**

‘교재개발자’는 교과서라는 유용한 학습도구를 만듦으로써 선생님이 더욱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또 한 명의 선생님입니다.

글로써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해주고 싶다는 꿈을 가진 학생, 교육흐름의 변화를 연구하고 이에 맞는 교과서를 제작해 선생님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학생이라면 교재개발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